

“레진 급여화 신종 추진을” 치협 집행부, 강은구 차관 간담회 입장 표명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이 오는 2005년부터 급여로 전환된다는 복지부 발표와 관련, 정재규 협회장은 1월 5일 강은구 보건복지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조기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대규 건강증진 국장, 범철식 보건정책 국장, 안성모 부회장, 윤두중 총무, 김동기 재무, 조기영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치협은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 치료를 오는 2005년도에 조기급여화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간과한 정책인 만큼,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

치협은 문제점으로 ▲이 두 항목이 아말감이나 화학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으로 대체 가능하고 ▲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보다는 심미목적으로 시행되며 ▲다른 재료를 사용한 충전치료보다 소요시간과 난이도 역시 길고 복잡하며 사용재료 역시 고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두 항목이 급여화 됐을 때 정부는 5백20억원 정도로 재정 추계 했으나 이는 과소 평가된 만큼, 신중한 연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두 항목의 급여화보다는 처석제거 급여 인정 범위를 2000년 7월 이전으로 확원하고 이미 소요재정 연구 및 실시방안까지 마련된 불소도포가 우선 급여로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 동안 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삭감 등이 이뤄져 정상적인 진료까지 왜곡됐다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난 12월 사실상 복지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보류된 회원자를 징계권 부여와 개원의 휴·폐업시 의료계 중앙회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정 협회장은 “극히 일부의 료인들이지만 윤리의식이 결여된 행동으로 의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제도적 장치인 만큼, 복지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가결정 시스템 개선 나선다 치협, 의협·한의협과 공동 법개정 추진 / 제도개선 항의서 복지부에 전달

치협이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치협은 1월 6일 ‘건강보험제도개선을 위한 우리의 요구 사항’이라는 항의서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전달할 가운데 수가 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 의협·병협 등 의료계와 공동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항의서에서 치협은 “2004년도 건강보험 환산지수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들의 일방적인 의사반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하고 “이 같은 무리한 저수가 정책은 결국 의료계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료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건강보험 제도 개선 문제점 해결책으로 ▲수가계약 당사자 본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의견대립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중재기구가 필요하며 ▲건강보험공단 계약당사자

(이사장)에게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쥐야한다고 촉구했다.

치협은 또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료계는 고통분담과 희생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공단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관리비를 줄여나가는 등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에 항의서 전달과 관련, 조기영 보험이사는 “현 건강보험제도 수가결정 구조로는 적정수가 적정 보험료를 창출해 국민은 양질의 의료를 받고 의료계는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원천 봉쇄돼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협의해 관계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월 정기총회 제출 ‘인정의대책 보고서’ 최종 확정 위원회 마지막 회의 사실상 활동 마감

오는 4월 17일 치러질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될 인정의대책연구위원회 보고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됐다.

인정의 문제 연구를 위한 인정의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종열)의 마지막 회의가 1월 16일 시내 모처에서 열렸다.

이로써 학회, 지부 등의 중지를 모아 명칭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인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됐던 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마감했다.

인정의대책연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치협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정의 문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결정돼 전격 구성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최동훈 간사가 ‘인정의대책연구위원회보고서’의 초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각 위원들이 이를 검토한 후 지구 수정

및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고서 검토 후 펼쳐진 토론에서는 인정의 문제를 의료시장 개방, 치과계 전체의 발전방향 및 역사 등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포괄적인 교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연구위원회에서는 이날 토론을 거쳐 나온 인정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각 위원들의 입장 및 의견들을 제안서로 첨부해 총회에 제출기로 했다.

김종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상호간 결론을 내서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지 못하고 보고하는 형태가 돼서 아쉽다”며 “중요한 것은 보고서에 다 포함돼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위원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 신년교례회 “희망·기대 넘치는 새해로” 정·관계인사 150여명 참석 ‘성료’

치협 신년교례회가 정·관계인사 및 치과계 원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9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교례회에서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올 한해 치과계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했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치협은 저소득층 무료치과진료사업 등을 통해 참여정부 최초로 참여복지를 실천한 단체로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해 여러 언론을 통해 장애인 진료에 가장 앞장서는 전문인 단체로 각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40여년간 표류되어오던 치과 의사 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위한 관련법령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협회장은 “치협 집행부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새해에는 우리 2만여 회원과 7만여 가족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으로 분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년은 치과의사전문직제도가 도입되고 한국인 최초로 윤홍렬 FDI 회장이 취임한 뜻깊은 해며, 특히 저소득층 무료의치사

업을 전개해 준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축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소 설립, 치대정원 감축 문제 등 치과계의 현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치과계의 중흥이 이뤄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인사말 및 축사에 이어 케익 절단과 김명득 대의원 총회 의장의 건배제의로 참석자 전원이 치과계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했다.

김명득 대의원총회 의장은 건배제의를 통해 “여기 모이신 내빈 여러분은 항상 큰 도움을 주시고 든든한 치협의 후원자”라며 “원로 및 치과의사들의 건강을 빌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빈다”고 덕담했다.

한편 이날 교례회에는 송재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황규선 전의원, 안재규 대한한의학협회 회장, 김영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신정필 대한치과기재협회 회장 등 외빈과 이윤익 신홍 사장, 서병주 비스코 아시아 사장, 유영철 한림덴텍 사장, 송규천 미동양행 사장, 안병일 스카이덴탈 사장 등 각 업체 대표를 비롯, 정재규 협회장, 김명득 대의원총회 의장, 최광철 대의원총회 부의장, 김지호 치정회장, 최금자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등 내빈들이 대거 참석, 자리를 빛냈다.

“SCI급 학술지로 만들자” 치의학회지 편집위원 20명 참석 워크숍

SCI급 학술지 탄생을 위해 각 분과학회서 머리를 맞댔다.

치의학회 영문학회지 발간준비 편집위원회(위원장 김각균)는 1월 30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워크숍을 열고 치의학회 영문학회지 발간을 위한 의견교환 및 저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20개 분과학회로부터 추천된 치과대학 교수 및 개원의 등 편집위원 20여명이 참석, 치과계에서 SCI 학술지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어떤 저널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manuscript preparation, ethical and legal consideration에 대해 차후 준비키로 했다.

또 워크숍에서는 각 분과학회서 국내, 국외를 막론해 학문적 업적이 있는 사람 2명을 편집위원으로 추천, editorial board를 구성키로 했으며, editor in chief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하는 등 치의학회지

발간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아울러 ▲SCI 논문용 준비중인 연구자 확보 ▲학술지 발행을 위한 예산 ▲original article보다 우수한 review 확보 ▲각 학회의 학술대회 시 치의학회 영문학회지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워크숍에서는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지를 치의학회 영문학회지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토의했으며, 치의학회 영문학회지 디자인 및 홈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각균 위원장은 “치의학회지가 치과계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 학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면 성공적으로 SCI에 등재시킬 수 있다”고 피력하면서 각 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